

## 카필라노 우림(雨林)에서 함께 살아가는 생태계를 배우다

캐나다의 보웬이라는 섬과 카필라노에 있는 생태공원을 가본 적이 있다. 이 곳은 우리나라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선수인 김연아 양이 2010년 동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내어 전 세계에 우리나라의 명성을 떨치고 온 국민을 행복하게 만들었던 밴쿠버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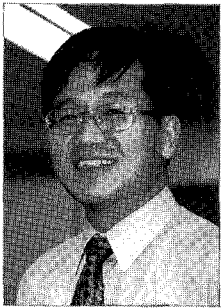
해양성 기후를 나타내는 이 곳은 한여름에는 우리나라보다 덥지 않아 낮에는 햇볕이 매우 따가우나 무덥지는 않고 아침이나 밤에는 선선하여 9월 중순 정도의 온도를 나타내며 겨울에도 영하로 내려갈 정도로 춥지는 않다.

알맞은 온도와 충분한 강수량으로 인해 거목들이 잘 자라고 있다. 대표적인 거목으로 시다(Cedar), 험록(Hemlock), 더글러스 퍼(Douglas Fir) 등이 있다. 이 거목들은 300~400년을 살 수 있으며 밑동 부분은 4m 이상이 되고 키 높이는 70m 이상 80m 정도까지 자랄 수 있다. 이 거목이 마치 플라스틱이나 시멘트로 만든 것처럼 아래와 윗 부분의 둘레 차이가 크지도 않으며 아주 곧게 늘씬하게 자란 모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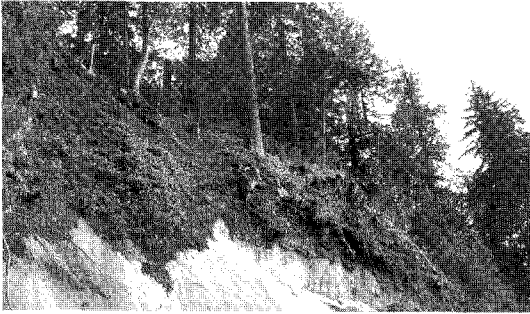
이런 거목들이 우리나라 마을 앞의 오래된 느티나무나 은행나무처럼 한두 개가 서 있는 것이 아니고 거대한 숲, 우림(雨林, Rain Forest)을 형성하고 있는 것을 보면 실로 장관이다. 이 생태공원을 보노라면 알맞은 기후와 토양 등 천혜의 환경으로 인해 갖게 된 이곳 사람들의 행운으로만 보인다.

그러나 '여기 사람들은 좋겠다. 이렇게 좋은 자연 환경을 갖고 있어서. 복 받은 땅과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이 숲에는 거목들의 뺨뺨한 장관을 보며 감탄만 하고 다녀가는 사람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생태계의 비밀이 있다. 강수량과 날씨 등은 천혜의 조건이 갖추어져 있지만 이 곳에는 거목들이 자라기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 바로 땅, 토



장 금 순 전무  
바이엘코리아(주)



바위로 된 바닥에 부식된 나무로 이루어진 얇은 표피만이 덮여있다.  
그 위로 거목들이 신기하게 서있다. 뿌리는 낮게 깔리고

양 조건이다. 대부분이 암석으로 이루어진 땅에는 흙이 거의 없어 거목들이 자라기에는 터무니 없이 부족하다. 우리가 생각하는 흙이란 게 1m 에도 톱도 없이 모자라 이런 거목들이 자라기에 필요한 양분도 공급해 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높이 70~80m의 높이에 무게가 40톤이나 나가는 그것들을 지탱해 줄 뿌리를 내릴 수도 없다.

이런 절대 절명의 취약점을 어떻게 극복하고 저와 같은 우림을 형성할 수 있었나? 그 비밀은 그 거목들 스스로가 만들어낸 생태계의 기막힌 원리에 있다.

거목들은 300여 년을 자라는 동안 여러 가지 이유들에 의해 뿌리부분이 뽑혀 버리거나 높이 3~7m 정도의 높이에서 부러져 바닥에 길게 누워 버린다. 이 때 부러진 밑둥 위에 나무 씨앗이 떨어져 싹을 틔우고 뿌리를 내리며 자란다. 그래서 둘레가 3m, 높이가 5~6m되는 나무 그루터기 위에 어린 나무들이 자라나 마치 정원사가 일부러 접을 붙이거나 심어 놓은 것처럼 보이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그 어린 나무들이 자라면서 뿌리를 내리고 어미 나무들은 서서히 삭아가면서 후대에게 양분을

제공한다. 100년 이상이 지나면 어미 나무는 더 이상 그 형체를 유지하지 못하고 길게 누워 있던 부분들도 부식토가 되어 후대의 나무 뿌리가 땅 위로 길게 뻗어 갈 수 있는 토양처럼 된다. 그리 하여 이 곳에서는 거목이 하나 있다면 그 아래에는 반드시 선대의 역사와 희생이 있는 것이다.

그 선대의 희생을 토양으로 자라나는 이 나무는 거대한 거목으로 자라나 새로운 숲을 형성하게 되고 세월이 지나면 앞서간 선대가 그랬던 것처럼 후대가 자라날 수 있는 토양으로 자기의 역할을 전환하게 된다. 물론 이 때 희생되는 나무를 토양으로 자라나는 새 나무가 반드시 같은 종류의 나무가 되는 것도 아니며 쓰러진 한 나무에서 하나만 자라나는 것도 아니다. 그들은 숲에서 함께 살며 숲의 역사를 함께 이어나가는 것이다. 그 숲의 역사 안에 시대의 삶과 역사가, 햄록의 삶과 역사가 또한 더글러스 퍼의 그것이 함께 살아 있는 것이다. 이 우림의 수 천년의 역사는 그렇게 쓰여져 왔고, 그렇게 계속 될 것이며, 방문객들은 그것에 대해 경외와 감탄을 계속하게 될 것이다.

이 숲의 생태계가 이어나가는 시스템을 보면서 우리나라 역사, 아니 우리 축산업계를 연계시켜 보았다. 보웬섬과 카필라노 우림의 환경 조건처럼 우리 축산업계도 치명적인 취약점을 갖고 있다. 그것은 축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원재료라 할 수 있는 사료, 종계(혹은 종돈)를 자급하지 못하고 모두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아니 경영기술이나 농장 관리 기술마저도 엄격히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고유

적으로 갖고 있는 것은 농장(땅), 노동력과 자본, 이 산업에 대한 열정 정도 뿐일 것이다.

그 중에서 땅의 문제는 점점 어려워져 간다. 땅 값이 치솟아 올라 축산업을 하던 사람은 부유해질 수 있을지라도 축산업은 어려워져만 간다. 노동력 부분도 이미 외국인 노동자들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이제 더 이상 우리의 것이라 말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자본과 우리의 노력 뿐이다. 우리의 노력을 말한다면 이는 우리의 정신적 자본이라 할 수 있다. 즉 많이 배우고 생각하며 서로 협조하는 무형의 자산들이다. 우리의 산업에 대한 기술력과 지식은 경쟁국보다 훨씬 앞서야 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유형의 자본인 사료, 종계, 땅, 시설 등에서 우리보다 훨씬 유리한 입장에서 있기 때문이다. 무형의 자산인 축산업에 대한 기술력과 지식도 우리보다 못하다고는 할 수 없으니 우리는 무지하게 노력하고 공부하고 생각하고, 서로 도와야 한다.

우리가 경쟁에서 이기려면 우리 산업과 관련된 모든 이들이 함께 살아가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이 체계에는 육계 농장, 계열화 업체, 종계 업체, 사료업체, 동물약품업체, 시설업체 뿐만 아니라 유통업, 외식업, 일반 소비자까지도 포함되어야 한다. 특정업체가 조금 더 많이 갖기 위해 관련된 산업을 어렵게 해서도 안 되며 같은 이유로 서로 공조해야 할 사안을 미루거나 파기 시켜도 안될 것이다.

소비자를 위해서 진정으로 질 좋고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는 데 생산에서 유통의 모든 단계

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제대로 해야 할 것이며, 소비자들도 내가 직접 하는 일이 아니라 해서 지나친 비난을 하거나 외면해서는 안 되며 무리하게 죽이려 들면 더더욱 안 될 것이다. 소비자는 어느 분야에서는 생산자이기 때문이며 반대로 어느 한 생산자는 다른 분야에서 소비자기 때문이다.

최근에 한 소비자 단체가 닭고기에서 식육 내 최고잔류한계 0.1ppm인 어느 항균제가 그 기준의 100분에 3인 0.003ppm이 검출되었다는 것에 대해 칭찬과 고마움을 표시하는 대신 그 항균제 사용을 금지시켜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것을 보고 할 말을 잃었다. 해당 닭고기 공급업체는 오히려 큰 잘못을 한 것처럼 일반 소비자에게 비취질 까봐 매우 걱정을 하고 있었다. 다른 어느 누군가, 다른 어느 업체가 이렇게 훌륭하게 지켜야 할 기준을 잘 지킬 수 있는가? 그 해당 단체도 자기들이 지켜야 할 규정이나 기준을 이 정도로 잘 지킬 수는 없으리라. 나의 일이 아니니 난 몰라 하는 태도가 아니라면 이는 지나쳐도 한참을 지나친 것이고, 몰라서 그런 것이라면 너무 모르고 한 처사이다.

우리 사회를 위해, 우리 산업을 위해, 우리 가족을 위해, 나 자신을 위해 우리는 더 공부하고 지식을 쌓아 가면서 함께 노력하고 배려하면서 살아가는 생태계를 만들어 가야 한다. 그러면 우리도 저 거목들이 무성한 보웬 섬과 카필라노처럼 모두가 경탄하고 부러워하는 우림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것을 벗어나 우리들 자신이 행복할 것이다. 